

일본의 올해 추동절 소재로 짐바브웨 면의 진즈가 호평

카이타크·텍스타일이 도쿄에서 「01 추동 캐주얼 소재전」을 개최하였는데 가장 호평을 받은 것은 「빈테이지 타입」의 진즈로 전시된 「짐바브웨 면」의 굵기가 고르지 않은 얼룩실로 짠 스트레치·데님이었다. 이 데님은 물빨래 가공이나 염색가공이 잘되며 소프트하고 유연하여, 원사의 얼룩이 내추럴한 느낌을 받게 함으로써 높이 평가되었다. 이미 봄 상품으로 시판되고 있는데 잘 팔리는 규격의 제품은 상품이 딸리는 상황이다.

제품으로 염색한 다음의 반듯한 마무리, 오래 입는 옷 같이 보이게 하는 물빨래·블라스트(blast) 가공은 진즈 어패럴에만 사용되고 있는 가공기술이었는데, 다른 캐주얼 어패럴들도 흥미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혼방직물에서도 태번수의 생지 직물에 색다른 가공을 시도하여 태번수 진소재의 말끔한 표면감이 호평을 받았다. 「센터·크리스(center crease)」가 있는 진즈와 같은 산뜻한 데님은 교직보다도 혼방으로 단조로운 염색이 관심을 끌었다.

또한 하드(hard)한 빨래가공의 인기가 지나면 다음에는 칼라·팬츠(color pants)의 가공이 유행할 것으로 보고, 생지를 칼라·진즈로 염색해 보기도 하고, 해외에서는 안정된 품질을 내기가 어렵다는 안료로 염색한 칼라·팬츠도 선을 보여 인기를 끌기도 하였다.